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7284.41	코스닥	829.43
(+427.58)		(+45.45)	
금리 (국고채 3년)	3.866	환율 (원-달러)	1492.15
(-0.021)		(-0.85)	

신동빈 롯데 회장
“AX는 생존 과제
CEO부터 움직여라”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李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 마련하라”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올해 보다 380원 오른다

대통령, 정부부처 업무보고
국민 200명 참석 국민참여 진행
“부동산 자산 비중 너무 크지않나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요과제”
자본시장 MSCI편입 상황 등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후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위한 탕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매회 20여명씩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시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다.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과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 아래의 ‘동전주’ 퇴출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우리 주식 시장이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같은 게 국제적으로 수요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며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내년 초면 대비책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6면에 계속〉

/사제인 기자 sy@metrosoul.co.kr



청년층 취업자 수 44개월 연속 줄어

국가데이터처, 6월 고용동향
총 취업자 수 2915만명 증가 전환

취업자 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으나 청년층에선 4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도 각각 2년째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만3000명(0.2%) 늘었다.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은 5월에 4만 명 줄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한 것. 하지만 증가 폭은 1월(10만8000명), 2월(23만4000명), 3월(20만6000명) 등 1분기와 비교해 크게 둔화했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운수업및창고업(4만8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9만7000명), 농림어업(-9만5000명), 건설업(-6만7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은 26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 영향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고유가 파해지원금이 본격 집행되면서 예술스포츠, 숙박음식업 등에서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국 매매·전월세 상승세 서울 월세 평균 128만원

부동산원, 6월 전국 주택종합지수
매매 0.33%, 전·월세 0.38%씩 ↑
서울 월세 상승률 역대최고 기록

전국의 매매·전세·월세가 지난달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월세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월세 평균은 128만원, 전세 평균은 4억8479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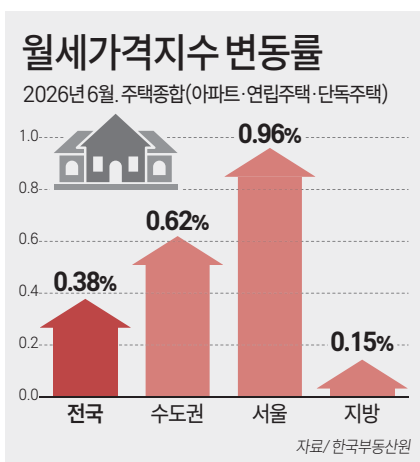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33%, 전세가격지수는 0.38%, 월세가격지수는 0.38%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과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 또는 구축 단지에서 시장참여자의 관망세 나타났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과 대단지·역세권 등에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1.03% 올라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이어졌다. 상승폭으로 보면 작년 10월(1.19%) 이후 가장 높다.

성북구와 광진구가 각각 1.39%, 1.31% 상승했고, 강남구(1.04%)와 송파구(1.1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격은 1.08% 상승했다. 지



난 2011년 9월(1.56%) 이후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지난 3월 이후 6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상승률이 2.0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평균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6% 올랐다. 지난 2015년 7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몰린 월세 수요가 월셋값을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성동구가 1.77%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 1.55% ▲송파구 1.48% ▲성북구 1.46% ▲강동구 1.24% ▲도봉구 1.19% ▲강북구 1.15% ▲마포구 1.13% 등도 상승폭이 컸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이 4억4158만원, 서울은 10억1268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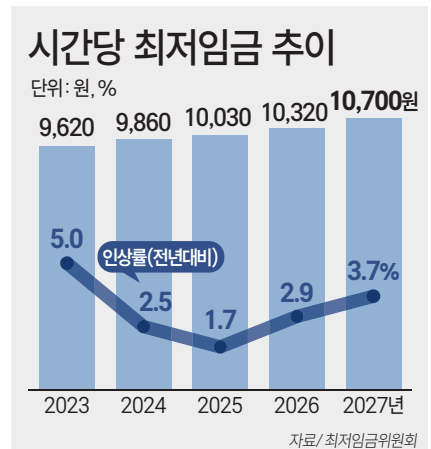
정화와 속개를 반복하며 차이를 좁혀간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합의추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안에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4.0% 인상한 1만730원을, 경영계는 3.7% 인상한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단 30원까지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노동계 안을 누르고 최종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일할 경우,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는 올해(215만6880원)보다 매달 7만942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최대 297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與 “MBK·메리츠에 국민 분노”…27일 정무위서 홈플러스 청문회 /사진 뉴시스

▲한미, 역대 최대 군수지원 훈련…美합정서 하역해 최전방 지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던 장윤기, 휴대전화서 인지정황 발견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치…영세사업장서도 줄었다